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함

[롬 1:8-10]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먼저 로마의 교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나타낸다. 오늘날 우리의 감사의 이유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 물질적 행동과 번창보다 먼저 우리 자신과 주위의 형제들이 구원받은 사실과 그들의 믿음과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소문이 주위에 퍼져나감을 감사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구원 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바울은 또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한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영에 있다. 영은 인격의 주체이며 몸은 영의 도구이다. 기독교는 단지 몸의 종교가 아니고 영의 종교이다. 우리의 중생한 영의 새 성향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늘 주장해야 한다.

바울은 그의 감사와 쉬지 않는 기도 생활에 대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사역을 증거한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며 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원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 혹은 저것을 하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약 4:15).

[11-12절] [이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원함이니 그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서로의 안에 있는(원문)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한 이유는 그들 보기를 심히 원했기 때문이며, 그가 그들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다. ‘신령한 은사’는 방언이나 병 고침 같은 은사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본다. 사도들의 사역은 일차적으로 말씀 사역이었다. 그 말씀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은 어린아이의 시기를 벗어나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로 자라며 견고케 된다(골 1:28-29). 오늘날 목사들의 사역의 목표와 임무는 바로 성경의 바른 강해이다.

바울은 또 서로의 견고한 믿음을 인하여 서로 위로를 얻기를 원했다. 이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만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한다고 겸손히 말했다. 성도의 교제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로 주신, 서로 안에 있는 믿음을 인하여 피차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다(살전 5:14). 이것이 영적 교제이며 교제의 유익이다. 우리의 교제는 단지 먹고 마시는데 그치지 말고, 이렇게 같은 믿음의 확인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주고 받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약간의(원문)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그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 또 하나의 목적을 그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한다.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는 거창하게 많은 사람의 구원을 목표로 삼지 않고 ‘약간의’ 열매 즉 몇 사람의 구원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열매는 로마의 성도들의 인격의 온전해짐과 선행을 포함한다고 본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격이

온전해짐과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갈 5:22-23).

[14-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쬐었다고 말했다. 여기의 ‘빛’은 전도의 빛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배운 자에게나 못 배운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우리나라 사람에게나 다른 나라들의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택함 받은 자들만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을 것이지만, 우리의 전도 대상에는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야 한다.

[16-17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전통사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아니함이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義)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함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널리 전하기를 원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다. 원문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오늘날도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날도 죄인들은 다른 수단으로가 아니고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고전 1:21-24).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

또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까닭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義)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다 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바이었고(신 6:25), 죄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긴 상태이었다. 이 세상의 근본적 문제는 죄 문제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 문제의 해결은 모든 사람과 세상의 근본 문제의 해결이다.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문제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경험과 성경을 통해 명백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의(義)를 복음에 나타내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이루신 의(義)이다(단 9:24; 롬 10:4; 고전 1:30).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의(義)를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뜻이라고 본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치이다. 어떤 큰 죄인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그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代贖)을 깨닫고 그를 영접하고 믿는 것, 곧 속죄신앙은 죄인이 구원받는 신앙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 교인들을 견고케 하기를 원했다(11절).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 성경말씀으로 견고해져야 한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며(롬 10:17) 말씀은 영의 양식과 같고(마 4:4)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겨야 한다(골 2:12). 그것은 우리의 신앙 지식을 확실케 하며(눅 1:4)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딤후 3:14).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골 3:16). 우리는 신구약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견고해져야 한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로 가서 서로의 믿음을 인해 위로 얻기를 원했다(12절).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된다(고후 1:3-4). 성령께서는 위로자로 우리 속에 계신다(요 14:16). 로마서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도들의 교제는 서로의 참된 믿음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

셋째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16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복음에 빛진 자이다.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죄인들은 그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이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한 명의 영혼이라고 구원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다.

주일오후설교 죄수들의 꿈을 해석함

[창 40:1-5]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굶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중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설켰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굶는 관원장이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 꿈이었다. 옛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창세기 20:3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셨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셨다(마 1:20; 2:13, 19).

물론 사람들이 꾸는 꿈들 중에는 헛된 꿈들도 많이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도 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은 헛된 것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꿈을 얻은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렘 23:28).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이 사실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말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6:29에서 그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말씀하셨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들의 글들인 구약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였다(딤후 3:16).

[6-8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물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실 수 있음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라고 말했다.

[9-15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前職)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당신의 일이 잘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군노브르 군나브트)[강제로 납치되어 온 자요 여기서도 옥(보르)[토굴 감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꾸는 꿈에 대해 그것은 사흘 후 그가 복직될 것을 보인다고 해석해주었다. 또 그는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납치되어 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치 않았다고 말했다.

[16-19절] 떡 굶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뒷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꿋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요셉은 또 떡 굶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흘 안에 그의 머리가 꿋어지고 그의 몸이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것은 매우 대조되는 해석이었다.

[20-23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굶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前職)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굶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의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렸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 2년 후 바로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그를 추천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시위대장이 맡긴 애굽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섬겼다(4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출 3:1),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중에(삼상 16:11),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다(마 4:18).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충실한 자들을 부르시고 들어 쓰신다.

둘째로,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다(8절). 그는 후에 바로 앞에서도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했다(창 41:16). 다니엘도 꿈과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였다(단 2:19, 28-30).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바른 해석을 주실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셋째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23절).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의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에도 진행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도 요셉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만 굳게 믿어야 한다.

수요일 설교 메시아 탄생의 예언

[사 9:1-2] [그러나]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고통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스블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빛과 즐거움이 올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취 것이다.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을 가리킨다.

[3-5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멘 멩어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썩멸 감같이 사라지리니.

하나님께서서는 또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실 것이

다. 그가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6-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政事)를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펠레) 놀라우신 분라, 모사(요에츠) 상담자라, 전능하신(능력의 하나님) 엘 기보르)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아바-아드)라, 평강의 왕(사르-살롬)이라 할 것임이다. 그 정사(政事)[통치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신적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다. ‘기묘자’ [놀라우신 분]은 그의 신성(神性)을 나타낸다. 그의 성육신(成肉身)과 탄생, 그의 기적 행하심, 또 그의 부활 등은 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다.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께서는 신적인 존재이시다. ‘모사[상담자]라는 이름은 메시아의 지혜를 나타내며, ‘능력의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며, 특히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그의 영원성, 아버지와 하나 되심, 그의 사랑, 생명의 근원 되심 등을 증거한다. 그것은 다 메시아의 신성에 관계된다. 메시아께서는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을 함께 가지신 독특하고 놀라운 인격이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땅에 참 빛을 비추실 것이다. 메시아께서는 참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구원과 내세에 대한 참 지식과 완전한 의와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지식과 완전한 의와 기쁨과 행복을 주셨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다.

둘째로, 메시아께서는 신성(神性)을 가진 자이실 것이다. 그는 놀라운 분, 상담자, 능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실 것이다. 그는 참된 신성(神性)과 참된 인성(人性)을 가진 독특한 인격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우리는 신적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메시아께서는 특히 평안의 왕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 참 평안은 하나님과 의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복이다. 주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마다 이 평안을 누리다. 우리는 이 평안을 감사하며 실제로 의롭게 살므로써 이 평안을 더 풍성히 누려야 하고 또 이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해야 한다.